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상하이 해운보험시장, 중국계-외자계 경쟁 치열

□ 작년 중국정부가 상하이를 국제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해운보험시장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음.

- 작년 말부터 상하이를 국제 물류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제운송센터 건립, 영업세 면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향후 해운보험시장이 활성화 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 AIU, 스위스 취리히보험 등 외자계 보험회사들이 잇따라 해운보험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음.

\* 2009. 12. 28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'상하이 해운보험시장 활성화 기대' 편 참조

- 풍부한 인수 경험 및 글로벌 지점망이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경쟁우위로 작용하고 있으며, 특히 보험표적인 화물이 세계 각국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화주(貨主) 혹은 운송인에게 최적의 위험보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임.

□ 외자계 보험회사들에 맞서 중국 보험회사들도 제도상 잇점을 이용해 상하이 해운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음.

- 중국 보험회사들의 경우 작년 말 대형 보험회사인 타이핑양보험이 해운보험시장 진출 전담 부서인 항운보험사업총본부를 설립하였으며 화타이재산보험, 따중보험 등의 중소보험회사들도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짐.
- 외자계들이 자국회사 위주의 제도 및 사업 규제 등으로 적극적인 해운보험시장 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것과는 달리, 자국 보험회사들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각종 세제혜택(연간 최소 5~6억 위안 규모의 비용 절감 예상)과 보험금 지급 분야 등에서 강점을 지녀 여러모로 유리한 여건임.
- 한편, 현재 글로벌 해운보험시장 규모는 약 2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, 영국, 일본, 독일, 미국 등 4대 해운보험 강국이 전체 시장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(재경망, 3/28)